

2024 년 9 월 1 일 “(생명의 공동체 4) 함께 가장 좋은 길로”(고전 12:31-13:4)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에게 축복을 가져오는 가장 좋은 길인 사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사랑 – 하나됨의 참 길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장점이 있었지만 동시에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열이었습니다.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고전 1 장).

분열은 교회의 본질을 해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합니다. 분열 후 하나됨이 어려운 곳은 사람의 표면적인 행동과 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법적으로 생각(판단)하는 고질적인 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과 사물을 대할 때 거의 반사적으로, 옳거나 그른 것인지, 잘했거나 잘못된 것인지, 좋거나 나쁜 것인지 구별하고 싶어합니다. 이것에 머물면 사랑의 교통으로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실패한 바리새인들을 예로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맹점> 그들은 나름대로의 경건한 방식으로 사회를 주도했습니다. 자기들의 말씀 해석 위에 세운 규정들을 문자적으로 지키면 경건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을 강령과 금기를 준수하는 수준으로 전략시킨 주범이었습니다. 경건을 외형적 모습으로만 평가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친밀하고 섬세하고 따뜻한 아버지가 아닌 높고 엄격한 신으로 소개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삶과 가르침 속에서 생명의 핵심인 사랑과 자유의 활동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외형화 작업으로 인해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가난한 자, 세리, 죄인, 창녀들)을 찾아가 아버지 하나님을 소개하며 그들과 먹고 마셨습니다. 그 때서야 비로소 사랑의 생명이 흘러서 예수님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긴장감 없는 교제 가운데 하나됨을 누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생명의 모습이었습니다.

[2] 이와 같이 사랑은 가장 좋은 길

분파된 고린도 교회 상황이나 바리새인들의 외형적, 문자적 경건의 추구 속에는, 의도적인 분열의 의도나 악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은 근본적으로 타락의 속성 때문입니다.

타락의 상태는 자기의 판단대로 옳고 좋은 것을 갈라내고 사랑의 차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됨이 깨어지게 됩니다.

고린도 교우들은 예수를 믿은 성도였지만, 타락의 본성에 이끌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들에 대하여 가르치다가(고전 12 장) 더 큰 은사인 사랑의 좋은 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1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 – 최고 수준의 선한 말

13:2 예언의 능력, 모든 비밀과 지식 – 신령한 능력과 깨달음

13:3 모든 소유와 내 몸을 넘겨줌 – 이타적인 구제와 헌신

➔ 사랑이 없으면 요란하기만 하고, 쓸모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4 절부터 나오는데, 첫 항목만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Love is patient) NKJV와 YLT 는 long-suffering 으로 번역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고통을 느끼게 하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눅 15 장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필요한 사랑은 먼저 오래동안 고통을 감수하는 새로운 성품입니다. 공동체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힘이 빠지고 속상하기까지 할 때가 있지만 이 때가 생명의 새로운 차원으로 점프할 기회입니다. 이 사랑은 낙심하지 않게 하며 오히려 희망을 갖게 해줍니다. 그리하여 든든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장 좋은 길로 함께 정진하는 교회와 목장과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것은 어떤 내면의 문제를 가졌기 때문일까요? 생각나는 이유를 말해봅시다.
2. 하나됨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랑의 속성은 어떤 것일까요? 13:4-5 을 참고하세요.